

만남

07

2021

통권 569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복음통일! 주의소원, 나의 사명’ 2021 북한선교대회 열려

2021 북한선교대회가 ‘복음통일! 주의소원, 나의 사명-동행 12,000km’를 주제로 6월 16일부터 20일(주일)까지 열렸다. 행사 주관 맡은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북한선교를 위한 30일 기도카드’를 배포하는 등 개막에 앞서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와 비전 공유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회 기간 중 18일(금) 이 호 목사(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대표)를 초청하여 ‘탈북 자유인의 복음화 방안과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주제로 영락포럼을 열어 온라인 생중계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20일(주일)은 1~5부 예배를 북한선교주일 예배로, 당일 찬양예배는 강신원 목사(노량진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베다니광장에는 ‘자유인과 함께하는 전시회’와 동행 12,000km 탈북과정을 의미하는 4단계 과정을 컨셉으로 휴전선 철조망 조형물을 설치하여 남북분단의 긴장감을 느낄수 있게 하였고 성도들은 자유인에게 기도카드와 메시지로 복음통일의 염원을 전하며 북한선교의 사명감을 고취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다시 불러요 여름성경학교 교가! 김운성

특집 I 04 여름,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시간 교육부

특집 II 10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박지운
전도대로365 12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 문성미
14 믿지 않는 어머니를 예배로 초대 이두희

기획특집 15 주일학교는 언제 생겼는가? 심우진

영락칼럼 20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박상구

땅끝까지 이르러 22 자유인 친구와 함께하는 예배 장대성
24 내가 생각하는 복음통일 최동호
25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김주안
26 코로나19 대유행이 복음전도의 기회 정연수

다음세대 29 언어 능력이 수학개념 발달에 큰 영향 계영희
32 버스에서 달성한 1000시간 기도 이성훈
34 손편지에 표시된 청년선교비전 선종현

영락의 울타리 36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진석
38 너무도 달라진 사회, 구역 섬김도 새 전략 필요 이성숙
40 영적생명을 살리는 세계교회강변협회 이정호
42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며 떠나신 어머니 나선환
43 초음파 검사 자세히 알아보기 이관섭

문화광장 46 섬으로의 초대 권혁일
48 회복 송경희

교회소식 49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개최 외
51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52 7월 목회력

표지설명



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피난민의 모습은 6·25 전쟁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손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품어 넉넉히 지켜주십니다. 기쁨과 안식을 되찾은 성도들이 손을 높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유승현 선임기자

다시 불러요 여름성경학교 교가!

김 운 성 위임목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코로나19 팬데믹도 여름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제게 여름은 특별합니다. 어렸을 때 여름이 다가오면 마음부터 들떴습니다. 봄부터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벼웁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저는 부모님께서 영등포로 이사하셔서 영락교회를 떠나 도림교회로 교적을 옮긴 후, 일곱 살 정

도부터 여름성경학교를 혼자 다녔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어린 제 걸음으로는 삼십여 분은 걸어야 하는 제법 먼 길이었는데, 중간에 복잡하고 위험한 철길 건널목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는 숙박 형태의 여름성경학교는 생각할 수 없었고, 새벽에 갔다가 집에 와서 아침 먹은 후 오전에 갔다가 집에 오고, 오후에 다시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름성경학교만 열리면 수도 없이 교회를 오가야 했습니다. 모든 시간에 개근하면 공책이며 연필 등을 상으로 주었는데, 저는 한번도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가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섯 시 삼십 분에 교회 도착하려면 그보다 일찍 출발해야 하니,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기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다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오고 가는 것까지 재미있

었습니다.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선생님을 빙 둘러싸고 앉아서 성경을 배우던 기억이 납니다. 단 하루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세월과 함께 나이를 먹기는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기다림으로 주님께 모여들면 됩니다. 어린이답게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중에서 5장 앞부분의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모여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은 이렇습니다.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참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 온 사람은 소수의 제자들뿐이었습니다. 무리는 산에 오르지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앞에 앉히시고 성경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말씀이 팔복의 첫 번째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왜 이 말씀이 팔복의 첫째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당신께로 오지 않는데 반하여, 산에 올라 당신 앞에 모여 앉은 제자들에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빈 마음,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들, 자신은 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길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느꼈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은 영적 갈증으로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에도 올여름 영락교회에도 예수님께 모여올 자리들이 열립니다.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의 수련회와 각종 훈련의 자리가 열릴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는 제61회 산상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상기도회 1차에는 장로회신학대학 총장서리이신 김운용 목사님, 2차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님께서 주옥같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산에 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잘 챙겨 보냅니다. 비록 완전한 대면 모임은 어렵겠지만, 온·오프라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오래전 부르던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다시 부르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올여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억되는 올여름이 되길 원합니다. **만남**

여름, 주 안에서 쉬어 가는 시간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영·유아·유치부



영아부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는 '와~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영아부 어린이와 부모님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이 시대를 살아가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 정 : 7월 3일(토) ~ 4일(주일)

장 소 : 본 교회, 각 가정

주 제 : 와~ 하나님이다!

유아·유치부

유아·유치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구하는 영락구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고, 손에 쥔 물매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다윗은 양들을 구했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가득한 오늘의 시대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

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또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영락구조대가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 정 : 7월 10일(토) ~ 11일(주일)

장 소 : 본 교회, 각 가정

주 제 :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유년·초등·소년부

2021년 유년, 초등, 소년부의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다윗 구조대!’(마태복음 22:37~39)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나누어 유년부와 소년부는 7월 24일(토)~25일(주일)에 초등부는 7월 17일(토)~18일(주일)에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경에 대해 더 깊이 배우는 성경학습, 소통하며 활동하는 액션챌린지와 키친챌린지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세상을 구조하

는 구조대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위협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지켜낸 다윗처럼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유년·초등·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여 세상을 구하는 구조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CebC의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시기에 ‘Wilderness Escape (Where God Guides &





Provides)'(출애굽기 3:12)라는 주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광야 생활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경험하게 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 정 : 유년부 7월 24일(토) ~ 25일(주일)

초등부 7월 17일(토) ~ 18일(주일)

소년부 7월 24일(토) ~ 25일(주일)

장 소 : 본 교회, 각 가정

주 제 : 다윗 구조대

사랑부

사랑부는 7월 31일(토)~8월 1일(주일)까지 본 교회 및 각 가정에서 '전하Go! 사귀Go! 누리Go!'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랑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안의 진정한 '사귀'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으로 사랑부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예배와 활동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미리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초점

을 맞춘 교재와 활동꾸러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경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 정 : 7월 31일(토)-8월 1일(주일)

장 소 : 본 교회, 각 가정

주 제 : 전하Go! 사귀Go! 누리Go!



중등부

중등부는 7월 23일(금)~25일(주일)까지 '강철부대-믿음의 병사를 찾아라'(디모데후서 2:3~4)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병사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태섭 교수(장신대)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인식과 정체성, 가치관 확

립을 위한 강의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이지만, 오프라인 못지않은 은혜와 감동이 예정된 중등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참여한 모든 학생이 예수님의 든든한 병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등부 교사들이 6주간 함께 모여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병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 정 : 7월 31일(토)~7월 25일(주일)
장 소 : 베다니홀(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 제 : 강철부대 - 믿음의 병사를 찾아라
강 사 : 김태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고등부

고등부에서 'STORY-나와 당신의 이야기'(아가 2:10)라는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2021년 7월 23일(금)~25일(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온·오프라인 병행)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

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이 너무나 귀한 이 시대에,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 정 : 7월 23일(금)~25일(주일)
장 소 : 50주년기념관 드림홀(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 제 : STORY - 나와 당신의 이야기
강 사 : 임우현 목사 (징검다리선교회 대표 목사)



대학부 여름 수련회

대학부는 'Reversion: 역전'(고린도후서 12:9~10)이라는 주제로 8월 1일(주일), 7일(토), 8일(주일)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특별히 고직한 선교사님(1일)과 김해영 선교사님(8일)을 초청하여

예배드리며, 7일에는 조별 모임과 활동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대학부 벗님 모두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 정 : 8월 1일(주일), 7(토), 8일(주일)

장 소 : 50주년기념관 드림홀

주 제 : Reversion: 역전

강 사 : 1일(주일): 고직한 선교사

8일(주일): 김해영 선교사

베드로부 여름 수련회

베드로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디모데전서 6:11)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하반기에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베드로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부서인 만큼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잘 대처하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험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 정 : 7월 24일(토), 25(주일)

장 소 : 50주년기념관 5층 503호

주 제 :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 사 : 전재량 전도사



청년부 하기비전트립 & 미션워크



청년부는 7~8월 ‘하기 비전트립: 2021 한국선교의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를 찾아서! (행 16:9)’와 8월 15일(주일) ‘미션워크(선교주간): 청년들의 일터 속 선교적 영성과 삶’을 진행합니다. ‘하기비전트립’은 국내의 선교거점들을 청년 공동체 부서의 각 대표자 4인(교역자 포함)으로 구성하여 미션을 수행하며 다녀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동체 대표자들이 미션 수행을 통해 받은 은혜를 브이로그(V-log)와 같은 형식의 비전트립을 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하지 못한 공동

체 지체들과 나누게 됩니다. ‘미션워크(선교주간)’은 청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집회로서,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선교적 영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난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선교에 대한 청년들의 비전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 정 : 1차 : 7~8월 중(하기비전트립)

2차 : 8월 15일(미션워크)

장 소 : 1차 : 인천, 증도, 부산, 순천, 제주도

2차 : 베다니홀

주 제 : 1차 : 2021 한국 선교의 고난과 영광의 발자취를 찾아서!

2차 : 청년들의 일터 속 선교적 영성과 삶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전도대로365 캠페인’으로 광장에 설치한 전도 물품 부스에서 만난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해소된 듯 시원하다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해 온 코로나 상황을 직면한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작년 내내 새 가족을 받지 못하다가 후반기부터 온라인으로 받았습시다. 많은 분이 등록하기는 했지만, 불신자가 전도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영락교회 전도부의 주된 사역 중 직장인 신우회를 돕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 코로나 이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신우회 모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초기 신천지가 주된 발

원지로 드러나면서, 또는 모여 예배하는 교회의 특성상 코로나 전파 위험군으로 분류됐을 뿐 아니라 몇몇 교회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뉴스 전파를 타면서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충

동원 주일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더니 그것을 들은 교회의 젊은 성도가 항의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모든 국민이 가족 간의 만남까지도 절제하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 교회에 등 돌릴 것이니 재고해 달라고 말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를 멈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와 상황은 어느 시대이든 있었습니다. 2천 년 동안, 초창기의 로마 제국과 이슬람권, 근세의 공산권 등 수없이 많은 희생과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으로 지켜낸 복음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하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들은 염병과 같은 자들이라고까지 했었지요. 또한, 복음이 가장 확장되어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일컫던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만능주의, 이성 제일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자들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 평가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에 의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도대로365 캠페인’



박지운 목사
고양·파주교구
전도부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대라는 성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몸부림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도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일에 전도 물품을 지원해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대중교통에서 만나는 사람,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 직장 동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을 ‘예배로의 초대’를 통해 초청했습니다. 많은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으며, 교회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셨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평소에 전도 대상자였던 딸친구 어머니를 이번 기회를 통해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셨고, 또 어느 성도님은 믿음을 잃은 먼 사촌 조카에게 연락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친정 가족을 전도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6살 예찬이가 이모와 삼촌에게 ‘이모, 삼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면 선물을 준대요! 우리와 함께 예배해서 선물 받아요!’라는 귀염둥이 조카의 부탁에 이모와 삼촌의 마음이 열려서 온 가족이 함께 영락교회 예배를 드리는 기적을 경험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전도 캠페인을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전도에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를 보내시며,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능력의 도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전도대로365, 코로나 상황에도 전도의 여정 이어가



전도부(부장 조용철 장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7주간 ‘전도대로365 캠페인’을 벌였다.

5월 30일 ‘예배로의 초대’를 앞두고 5월 23일까지 전도대상자 작성서와 전도지원 신청서 97명 접수 받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전도용품으로 물티슈와 전도지를 배부하고, 전도 관련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했다.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교회로의 초대행사에 참여한 성도는 현장예배 45명과 사진으로 접수된 온라인예배 11명이었으며, 새가족으로 등록한 교인이 33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도부는 ‘전도대로365’ 행사를 계속 이어가며 전교인 전도의를 고취하기 위해 매월 2째주 교회 베다니광장과 벨엘 입구에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유튜브에서 ‘영락교회 전도부’를
검색하면 전도세미나를 비롯한
전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



사업장(약국)에서 만난 손님을 전도해 온라인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필자와 새가족 성도

저는 환자의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만져주는 약사의 사명을 가지고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설교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약국에 오는 환자 중에는 항의하는 분도 있지만 평안하고 좋아하는 그 한 분을 위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쁘게 약국에 들르시는 분들과 짧게 교제하면서 친분이 생기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예배에 초대된 전도 대상자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한 달에 4~5번 정도 정기적으로 약국에 오시

면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툭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휴대전화로 꾸준히 보내고 교회 소식을 은근히 얘기하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영상을 보냈습니다. 보내드린 영상을 한동안 열어보지 않아서 며칠째 영상을 보내지 않으니 그분이 자기의 휴대전화가 낮은 기종이라서 영상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보내드린 영상을 열어보지 않는 것이 거부의 표시라고 생각했다고 하니 그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전도 대상자는 이전에 큰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다 쉬다 여러 번, 이번에는 13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점점 기울어지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 오셨던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제 말에 뜨끔하신 눈치였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예배로의 초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영락교회에 가기는 멀다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온라인 예배를 약국에서 드리자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자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웃고, 웃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니 준비해 온 헌금 봉투를 제게 건네며 교회에다 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에 써놓



은 문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절을 들려주었는데, 그때는 세상일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니 세상 풍파가 몰려와 피곤하고 외로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르지 않냐”라고 건넸던 말들이 싫지 않았으며 가슴에 박혀 며칠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하며 세상 친구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 그 친구들에게 “난 이제 예배드릴 거야” 선포하고 왔답니다. 그분의 표정이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밝아지고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하십니다.

컴퓨터도 없고 휴대전화 기종이 낮아 온라인 새신자 신청과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는 상황을 몹시 안타까워하며, 자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약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까요?”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오겠다

고 제안했습니다. 이제야 든든한 아버지의 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피난처 되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의 벽이 세상과 단절을 알려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영적 심정

기쁨에 넘쳐서 다니는 그분을 보는 저도 구름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야 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꾸준히 전도했던 열매가 맺혀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만남**



문성미 집사
노원교구, 의료선교부

믿지 않는 어머니를 예배로 초대

어머니께서 지난 5월 30일 9시 30분 두 손자와 함께 영락교회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6월에 선교관에서 저의 결혼예배를 드린 이후 두 번째로 어머니가 드린 예배입니다.

시골에 홀로 계시는 저의 어머니는 지금도 주방 한쪽 작은 공간에 조상신을 위한 제물과 돈을 올려놓고 전기로 불이 들어오는 촛불을 켜 놓고 계십니다.

결혼예배를 영락교회에서 드리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교회의 뜰을 밟게 해달라는 저와 아내의 기도예, 하나님께서 완고한 부모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그 당시 두 대의 버스에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을 태우고 영락교회로 모셔왔습니다. 결혼식에 술도 없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일부 불만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결혼 예배와 피로연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18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그때보다 더 우상에 빠지셨고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사소한 것까지도 다 꿈에 결부시키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도무지 틈이 보이지 않았고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침 <전도대로365 캠페인> 사역에서 예배로의 초대가 마지막 행사로 기획되었고 어머니를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전도부 박지운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머니를 초대하는 영상 편지를 찍어 보내면

어떠냐고 제안하셨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찍기로 하고 2주간 촬영과 편집을 거쳐 교회 홍보영상에도 올라갔습니다.

그 홍보영상을 어머니께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말씀드렸지만 거절하는 말투로 얼버무리셨습니다.

드디어 5월 29일, 저는 두 아들을 어머니께 보내면 손자들을 반가워하실테고, 할머니와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받은 숙제라고 손자들이 말한다면 응해주실지도 모른다는 나름의 전략을 세워 아이들을 시골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 할머니께 혼날지도 모른다 걱정하며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5월 30일 아침에 할머니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 기적이 일어났으며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골을 떠날 때 “할머니 또 와도 돼요”라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만남**



이두희 안수집사
성동·광진교구
전도부 차장

주일학교는 언제 생겼는가?

1. 주일학교의 역사

주일학교의 창시자는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5~1811)입니다. 그는 영국 글로스터에서 1780년 세계 최초로 주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당시 영국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다양한 범죄가 범람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며, 귀족들을 비롯한 극소수만 교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몰려서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산업현장은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상황이었어서 당시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못 되었다고 합니다. 인쇄업을 하던 레이크스는 범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들여 25년간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노



심우진 교수
서울장신대 신학과

력했지만 자포자기합니다. 결국 그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가 주일학교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이크스는 스톡 목사와 함께 1780년 글라우체스터의 수티 엘리(Sooty Alley)라는 곳에서 킹 여사(Mrs. King)를 교사로 임명하여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메레디스 여사(Mrs. Meredith)의 부역을 빌어 자리를 옮겼으며 메레디스 여사를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이들의 질이 너무 나빠서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는 또다시 크리스츨리 부인(Mrs. Christchley)의 집으로 옮기는데, 비로소 이곳의 주일학교가 안정을 얻습니다. 오전 10~12시, 오후 1~5시에 열린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은 글 읽기, 손 씻기, 얼굴 닦기, 머리 빗기 등을 비롯하여 성경을 가르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창시한 로버트 레이크스(1735~1811)



레이크스의 주일학교는 성공적이어서 1783년 글로스터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주일학교가 설립된 지 불과 5년 후인 1785년 각 교회의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영국에서만 25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의 교회와 사회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교회와 귀족사회는 주일학교를 ‘위협스럽고, 비도덕적이며, 악당의 조직이고 더 나아가 악마의 기구’라고 정죄했습니다. 당시 영국교회의 주교는 모든 사제에게 통보하여 주일학교를 저지하도록 지시했고, 귀족과 부유층들은 주일학교야말로 자기들의 선량한 종들을 선동하여 임금상승을 부채질하는 나쁜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교회와 귀족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는 레이크스 사망 20주기인 1831년, 레이크스 동상을 제막하는 식전에서 영국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125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레이크스는 “나에게 작은 저금통장이 있는데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십시오”라고 유언했습니다. 레이크

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곧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851년 스웨덴에서는 7,000개의 주일학교와 32만 명의 학생, 2만4,000명의 교사를 보유하게 되었고, 1865년 네덜란드에서는 2,000개의 주일학교, 21만 명의 학생을, 1891년 독일에서는 9,000개의 주일학교와 95만 명의 학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협회에서 교재 발간

레이크스는 1803년 <주일학교협회(Sunday School Society)>를 설립했는데, 이 협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재를 통일적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통일공과>를 발간했습니다. 약 100년 후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수준별로 향상하자는 취지에서 <계단공과>가 출간되었습니다.

레이크스의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에 전해지면서 더욱 활발해집니다.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교회가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레이크스가 주일학교를 설립한 지 불과 10년 후인 1790년에 당시 미국 수도이자 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협회가 설립되었고, 이것을 필두로 각 주에 주일학교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824년 <주일학교연맹>이 설립되었고 이 연맹이 미국 전체의 주일학교를 관장합니다.

1889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제1차 세계주일학교대회를 개최했고, 1907년 제5차 로마대회 때, 영국, 미국, 유럽 대표들은 <세계주일학교협의회(World's Sunday School Association)>를 발족했습니다.

2. 한국의 주일학교

1888년 이화학당에서 출발

한국의 주일학교는 1888년 1월 15일 스크랜턴 부인이 주도하여 이화학당의 한 단칸방에서 어린이 12명, 부인 3명, 선교사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905년 선교연합공의회 안에 <주일학교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주일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는 계기를 맞습니다. 1907년 로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주일학교대회> 보고에 의하면, 당시 한국의 주일학교 수는 전국에 613개였으며, 학생은 4만 5,918명이었고, 1913년 제7차 대회에서는 주일학교 수가 2,392개, 학생은 11만9,49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913년 세계주일학교협의회 부회장이인 하인즈가 내한했을 때, 그를 환영하는 주일학교 대회에는 1만4,000명이나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1921년 전국 주일학교대회가 열렸는데,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궁혁 박사가 초대 대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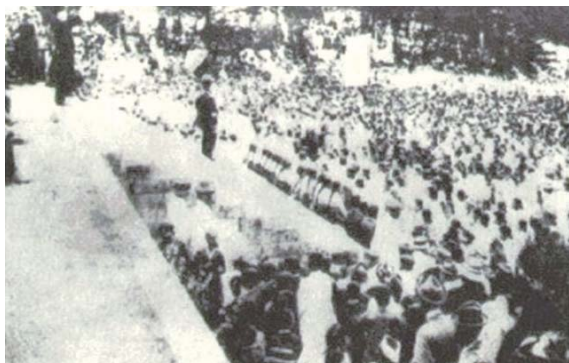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일학교는 1911년부터 미국의 통일공과를 번역하여 주일학교 교재로 채택했으나, 1927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계단공과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 유학파들의 귀국을 계기로 각 신학교에 기독교교육학과가 신학과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고, 주로 루이스 웨일의 <만남의 기독교교육>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에게 친숙했던 80년대의 <말씀과 삶> 시리즈나 200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시리즈에 배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3년부터 1940년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종교적 성서교육학회(종교교육협회, R. E. A.)에 영향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교육이 차츰 보편화하면서 이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종교적 진보학파는 단순히 요일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즉 Sunday School 보다,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주체를 가리키는 교회가 포함된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부터 줄곧 사용하던 주일학교라는 용어 대신에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를 가볍게 본 독일 교회의 모습

필자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1990년대 후반에 독일 원로 신학자들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 교회에는 성도들이 없어 텅텅 비어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독일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래 독일 교회에는 성도들이 넘쳐났었습니다. 특히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리마다 넘쳐나는 시체를 본 독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청바지, 통기타, 히피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청년문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녀도 함께 이탈하면서 교회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워낙 불



제1회 조선 주일학교대회에서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강연



1백여 년 전 연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량스럽게 보여서 설마 이것이 교회를 위기에 처하게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의 10여 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두 세대가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교회는 치명적으로 타격받았습니다. 지금은 이탈 세대의 부모 세대인 노인들만이 텅 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 원로들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 교회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청년문화를 끌어안는 한국 교회를 소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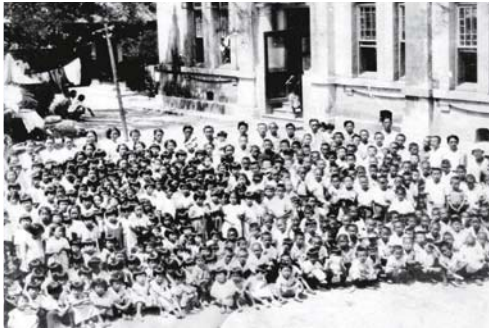
한국의 교회학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학교가 한국 교회 부흥의 견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는 교회학교 부서가 아예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회학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는 저출산, 토요일 휴무, 놀이문화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미처 극복하기도 전에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로 다가 온 코로나19 사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사태는 아직 종식되지도 않아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

여름, 다시 교회학교 여름 교육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영락교회 교회학교의 여름 교육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1960~70년대 명실상부한 한국 교회의 대표적 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의 신자든, 다른 교회의 신자든 모두 다 영락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락교회의 지도자적인 모습은 수많은 교회에 모범이 되고, 용기를 주고,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필자인 저도 교회학교 교육행사 관련해서 영락교회에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어두우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어두웠던 과거, 영락교회가 등불을 비추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때에 영락교회가 다시 한번 등불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일학교를 창시한 역사를 되돌아본 것은 그가 어두운 시기에 등불을 비춘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학교를 다시 살려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그 역사를 보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

영락교회 주일학교의 초기 모습



1948년 8월 1일 제3회 하기성경학교



1954년 영락유치부 신설



1955년 영아부 예배시간(본당 강단 옆 준비실에서 촬영)
전에는 영아부·유아부 예배실, 자모예배실, 유아 세례식 장소로
사용하였다. 뒤편에 김찬빈 권찰(한경직 목사 부인)이 앉아 있다



1962년 베들레헴과 사무실 앞 유년부 여성성경학교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변한 예배 준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인간 세상은 동시대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고통과 혼란에 직면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기원에서부터 금년 백신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 속에서 국력과 개인의 자유가 시험당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주일학교 시절 주일예배와 반별 성경공부는 물론 여름성경학교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손길에 이끌렸을지언정 열심이었던 순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시험준비와 사회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 부모가 된 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주님이 아닌 아이 입장으로 타협하며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서적이라 할수 없는 나름의 루틴이 만들어져서 주일 성수는 부모님을 뵙는 날 등 인간적인 이벤

트로 보냈고, 성탄절이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족주일처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예배 시간을 엄수하지 못해 자주 지각도 했습니다. 격동기와 성장기에 더 바쁘고 피곤하셨음에도 몸소 크리스천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께 부끄러울 만치, 심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서 벗어나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5월경부터 예배를 교회에서 전혀 드리지 못하다가 수개월 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우리 교회 2·3부 예배의 경우, 이를 때는 약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본당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로움과 불편 때문인지 대부분의 가정과 지인들은 유튜브 예배로 주일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운 코로나 정국이지만, 대면예배를 고수하시는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부자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자는 소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봄부터 평균 격주로 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려보니 기존에 드렸던 많은 주일예배와 처음 몇 번을 제외하고는 집중력이 떨어진 유튜브 예배가 불경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서둘러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1시간 가까이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묵상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예배 시작을 기다리다 보니, 주님께 바칠 예배를 준비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 태도가 비로소 보였고, 예배 순서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예배 환경이 비록 타율적이긴 하지만, 세속적인 타성을 깨뜨리지 못했던 나 자신을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혁신을 꾀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코로나 극복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일제강점기 이래 독립과 근대화 및 민주주의를 위해 눈물의 기도 속에 피땀을 흘린 한국 기독교가 반기독교적인 세상 정치와 사이비 종교의 행태들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도마 위에 올라 참으로 심한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시다.

코로나19의 낮은 치사율에 비해 감염속도가 현저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로 인한 공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신앙의 자유 등 정신적 기본권이 영업의 자유 등 재산적 기본권에 우월하다는 헌법 해석,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범위를 둘러싸고 서구가 취한 일괄 봉쇄(Lockdown),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 등에 기초한 K-방역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 다수의 목소리가 선택한 결과라는 예배의 제약 환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인간 중심적인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중심으로 단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 흑사병, 스페인 독감 때의 예배 형태나 방법을 떠올리지 않아도 일제 강점기와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호기심 충만하고 새로운 정보 흡수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어린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입시 전선에 놓여 있는 청소년인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일학교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매체로 연결되었더라도 왕성한 신앙의 뿌리 내리기 교육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녀 양육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찬송하며 성경공부하는 대면예배가 필요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명목상 신앙으로부터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예배라는 학습효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와 모든 크리스천에게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박상구 집사
강남교구
홍보출판부 전문위원
부장판사

자유인 친구와 함께하는 예배

인생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청년의 때를 앞서 걸어가시고 사명을 순종하신 것처럼, 인생 중 맞이하는 청년의 때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이자 특권의 시기입니다.

저에게 영락공동체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북한에서 온 자유인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비전에 응답해 직업적 소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함경도에서 온 친구를 따라 처음 영락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복음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사상과 이념 갈등으로 얼룩져 서로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어 피 흘린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함경도에서 온 친구는 저보다 앞서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자유인 예배부와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의 북한선교 연합모임인 〈하베로 기도회〉 모임을 통해 북한 땅이 보이는 강원도 철원을 방문했습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원〉 봉사에서 자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

며 또 한 번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언어와 한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탈출할 때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도와 주고 있음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소그룹 나눔에서 자유인 청년들이 남한에서 태어난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하고 비슷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써 내려간 기도 제목을 보니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애통함이 담겨 있었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동참케 하시는 계획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매달 하나원 봉사에 동참했고, 젊은이 복음통일학교도 수료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온전히 자립하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작년,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정도는 봉사를 쉬니까 몸이 편하고 시간도 여유로워서 잠시나마 좋았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은 사실 시간과 체력이 엄청 필요합니다. 하나원 예배가 있는 주일은 오전 7시에 모여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9시에 하나원 하나교회에 도착해서 11시까지 자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 나눔



까지 한 후, 다시 영락교회로 돌아옵니다. 버스 한 쪽에서 오전에 만난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오후에 섬겨야 할 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 리더로 섬기며 저녁 늦게 까지 회의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늦은 저녁입니다. 다음날 직장이라는 전쟁터로 나갈 준비를 하려면 정말 빠듯하게 시간을 쪼개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일터에서도 사회적 소외계층이 더욱더 고립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예배도 세상의 방해를 받으며 성도 간에 말씀과 떡을 나누는 교제를 하지 못하자, 그동안의 일상이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목상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내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목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서야, 초대교회 성도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핍박받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스가랴 13장 7~9절을 병기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주님의 계획안에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영락 공동체의 비전인 민족복음화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 멀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참다운 신앙의 롤 모델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 다음세대가 영락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남**



장대성 성도
인천교구
청년부 북한선교회
전도부

내가 생각하는 복음통일

영락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어머니가 섬기는 <자유인예배부>에서 복음통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분단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통일은 꼭 일어나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라지만, 사실 제게는 너무 막연한 일 같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33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2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13세 어린 나이에 남한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멀리 오시는 게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 가족은 모두 내려오셔서 이산가족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통일되어 고향에 가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되면 무조건 좋을까?’ 친구들과 깊게 이야기해보지 않았지만,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단된 두 민족이 하루아침에 통일된다면 사회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언어도, 화폐도, 도로와 교통도, 의료시스템도 다르게 살아왔지요. 국기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할지? 통일한국시대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통일의 유익도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영토가 넓어지며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 인적·기술적 자원을 경제 발전에 더 쏟아부을 수 있겠지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고민인 남한의 인구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통일은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시고, 철조망을 걷어치워 38선을 지우고 “편

하고 통일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절대로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남·북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복음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고 먼저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북한에 억압된 우리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통일을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이겠지요. <자유인예배부>에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자유인찬양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통일의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북한의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남**



최동호
중등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며 한 형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인 저와 제 또래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통일

통일을 무조건 원하시는 어른 세대와 달리 많은 청소년은 통일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특히 남한이 북한 사람들 못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로 정치적 이념이 매우 다를 텐데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분단 비용은 지속해서 많이 들어가니, 하루 빨리 통일되어서 분단 비용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70년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생각과 이념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통일과 북한선교의 정의

‘복음통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이 통일 되는 것이며, ‘북한선교’란 복음통일을 위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주민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과 핏박과 고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DMZ’라는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서로를 경계하

며 휴전 중인 민족의 상황을 보며 굉장히 슬퍼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단 상황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복음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알더라도 감시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명에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성경 구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탈북한 자유인에 대한 신앙·심리·경제·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돕고 자유인예배와 신앙 양육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북한 주민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여 방방곡곡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북한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안남**



김주안
중등부

코로나19 대유행이 복음전도의 기회

정연수 선교사 _ 인도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연수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인도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시기를 『만남』을 통해 모든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는 현재 코로나의 2차 대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20일 텔리 인근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지만, 산소공급이 가능한 병실을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2차 대유행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무

엇보다도 인도의 <쿰브 멜라>라는 힌두교 축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쿰브 멜라는 4개의 도시를 3년마다 돌면서 강가에서 목욕하는 의식을 하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이 매일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서로 얹히고설켜 목욕하며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주정부 선거 기간 중 선거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장소를 너무 일찍 개방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인도 수도 텔리는 지난 4월부터 6월 6일까지 전면적으로 도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철저한 봉쇄로 인해 도시 빈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인 도시 빈민





1 2 3 음식나눔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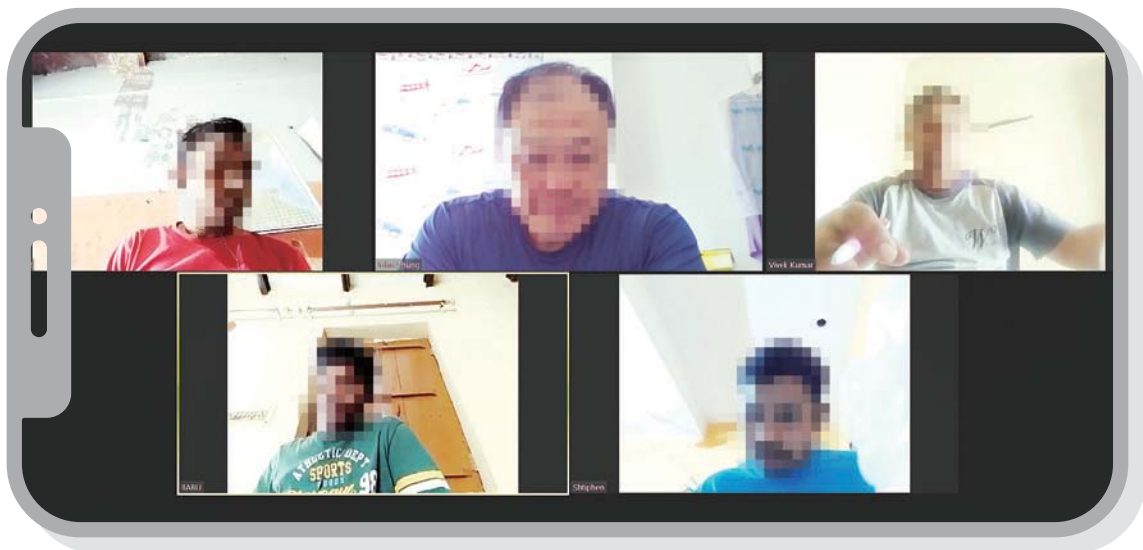
정연수 선교사와 인도 사역자

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집에 갇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시가 통제되어 낮에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사역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니 소통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안으로 새벽에 사역자들을 만나 사역 회의를 하고 있고, 한 공간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워하다가 줌을 이용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연결도 어렵고 전기가 끊어지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이제는 익숙해지고 성경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배운 교훈을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 토론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인도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1년에 3독을 목표로 함께 성경통독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자이므로 목사안수를 받을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 교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음식 나눔 사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음식 꾸러미를 만들어 굶주리고 있는 인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4명이나 되는 한 가정을 방문하여 먹을 것을 못 구해 슬퍼하고 있는 엄마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음식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들을 보내주셨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 방문가정이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유로 지역 유지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났던 한 사역자는 다시 이 지역에 복음과 한 가정이 일정기간 먹을 수 있는 음식 꾸러미를 가지고 들어가 ‘음식 나눔’ 사역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모임이 금지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평소 철저하게 힌두교를 믿고 기독교를 배척하던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코로나’를



줌으로 성경공부하는 인도 사역자들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이 지역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방문하는 가정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생겼으며, 어떤 경우에는 힌두교 사제에게도 음식을 나누며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역자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도 선교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간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도에 저를 옮겨 놓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

님은 나를 인도 땅에 서 있게 하셨을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은 인도 땅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 인도에는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인도 목회자, 사역자들을 통해 우상의 나라 인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인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인도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언어 능력이 수학개념 발달에 큰 영향

- 영·유아와 초등생 자녀를 위한 탐색

신생아도 수학적 능력이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임신하면 태내 아기의 ‘태명’을 짓고, 아기의 태명을 부르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태내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언어교육의 시작이라면 언어 못지않게 중요한 수학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20세기 서구 현대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 인지발달심리학자 피아제(Piaget, 1896~1980)는 영아는 만 2세를 전후하여 표상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구조가 발달해야 내적인 사고가 가능하므로,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단계에서 단순히 입으로만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와 같이 논리적 조작이 필요한 연산은 유아기에 도입해서는 안 되고 초등학교 입학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제의 이러한 이론에 맞서는 연구 결과가 1980년대부터 발표되었습니다.

1980년 스타키와 쿠퍼는 4~5개월 된 영아가 물체 2개와 3개를 구별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뒤이어 엔텔과 키팅은 신생아 대상 실험에서 역시 2개와 3개를 구별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인간이 수량을 구별하는 능

력은 선천적 능력임이 판명된 것이지요. 2000년대 초에는 돌이 지난 영아를 대상으로 더욱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2~14개월 된 영아는 ‘많음과 적음, 같음과 다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1살 반에서 2살 정도의 영아는 3~4개의 수량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지녔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아기의 수 세기 능력은 자녀의 수학 성적으로 연결된다

국내 유아교육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아들은 2세가 되면 고유 수단어를 ‘하나, 둘, 셋, 넷’까지 센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키울 때 대부분 보게 되는 현상이지요. 아이에게 “몇 살” 하고 물으면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펼쳐면서 “세 살”이라고 답하는 시기이지요. 3~4세경에는 열까지, 5세경에는 스물까지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漢字)의 수단어는 2세에 1을, 3~4세에 10~14까지, 5세경에는 49까지 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들의 경우 하나, 둘, 셋과 같은 고유 수단어와 일(1), 이(2), 삼(3)과 같은 한자 수단어를 익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아제는 유아의 무의미한 수 세기는 단순한 수의 나



열이지 수의 개념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최근 주장되는 학설은 유아기의 수 세기 능력은 향후 수학능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아기를 지나 유아가 되면 수학 개념이 발달하는데 이 시기는 언어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수학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같다, 짧다” 등이지요. 수 세기 능력은 물론이고 수학적 개념의 발달은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정서지능 ⇒ 공간지능

⇒ 언어지능의 순으로 발달

뇌 연구 학자들 보고에 따르면, 2~4세 유아들은 정서지능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5~8세 경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와 공간을 주관하는 ‘우뇌’로 분화하는데, 우뇌는 4세부터 좌뇌는 7세부터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뇌가 먼저 발달하고, 언어능력과 수학적 능력이 그 후에 발달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의 우뇌에 이미지가 많이 저장되도록 유모차를 태우거나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기에 겪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는 인지발달을 저해하고, 즐거움과 기쁨, 행복감은 창의성을 증진하고 지능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선생님과 친구 등 많은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즐겁게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유아와 초등생의 지능이 정서와 더불어 발달하게 됩니다. 신체활동을 통한 신나는 놀이, 풍부한 시각적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는 미술활동, 다양한 멜로디가 어우러지는 음악 등과 함께하는 수학교육이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수학을 ‘정답이 하나’인 과목으로 생각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학도 ‘정답이 없는 과목’으로 인식합니다. 수학 시험도 정확성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교육선진국들의 다양한 수학교육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사고력을 높이는 미국

미국 초등생의 수학 교과서는 스토리텔링이 주류를 이룹니다. 쇼핑, 여행, 취미활동 등 일상의 이야기들을 문단으로 제시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사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초등 3년까지는 읽기를 강조하므로 수학은 상대적으로 쉽고, 초등 4년부터는 계산기

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토리텔링을 초등 수학 교과서에 도입했다가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중고(二重苦)를 준다고 교육 과정이 바뀐 전례가 있지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수학’을 강조하는 영국

영국은 유치원과 초등 2년까지 숫자와 덧셈, 뺄셈, 도형을 주로 배웁니다. 특히 도형은 바깥 놀이를 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사물을 찾으며 스스로 움직이고 답을 찾는 과정을 훈련합니다. 초등 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을 배우지만 연산연습이나 공식암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연산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대부분의 영국인은 ‘생각하는 수학’이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독일

독일의 수학교육은 쉽게 계산하는 요령이나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신만의 방법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다가 마지막에 간편한 법을 설명해줍니다. 자신의 계산법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100% 주관식 시험문제를 채점할 때 교사는 정답보다 풀이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수학교육 방법에 대한 독일 학부모들의 신뢰는 강하다고 합니다.

실험과 놀이로 흥미롭게 공부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흥미를 키워야 수학 실력이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수학 수업에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실험과 놀이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가령, 비율을 배울 때는 레몬 원액에 물을 희석하면서 레몬주스를 만들어보니까 학생들은 흥미롭게 개념을 익히고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와 학부모 모두 수학 공식의 암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데 힘쓰는 것이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교육선진국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가치 추구하고 수업방식이 이처럼 다양한 것은 역사 속에서 체득한 민족성과 집단 무의식이 각기 다르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성과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수학교육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야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다음세대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만남**



계영희 집사
안양·수원교구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버스에서 달성한 1000시간 기도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꿈꾸는 땅’을 섬기고 있는 이성원 형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저의 신앙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기도였습니다. 부서에서 온라인 ‘쭈’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했지만, 저의 개인기도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을 통해 기도하는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에 도전받아 부서의 리더들과 논의하며 ‘1,000시간 기도 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서원을 하나의 카톡 방으로 초대한 뒤 유튜브로 송출하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 시간을 카톡 방에 올리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게 올려진 시간을 매일 합산해서 ‘100일 동안 1,000시간을 달성해 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프로젝트를 구상할 당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 출근 버스에 몸을 실으면 피곤함으로 인해 바로 잠들었던 제가 이상하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0시간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야 해!’라는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출근 버스는 1,000시간 프로젝트를 위한 저의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1,000시간 기도 프로젝트를 마무





리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100일 동안 무려 1,080시간을 달성하게 되었고, 기도 중에 마음의 감동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을 모아 아프리카 식량난을 돕기 위한 선교비로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1,000시간 기도 쌓기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 마음에 있는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 특히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술과 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하며 ‘천국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만나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만,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라는 애통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꼭 만나주세요. 지옥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천국 가는 길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이실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소홀했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을 애통해 하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열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깨닫고 나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이성원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손편지에 표시된 청년선교비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이 말씀에 의지하여 청년선교비전대회를 계획하며 준비했습니다. 청년부는 선교비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선교적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세계 복음화와 복음통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8월에 있을 하기선교봉사를 통해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한경직 목사님의 소망인 복음통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락교

회 청년회가 자체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7개국 11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선교비전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회 내 활동의 문이 닫히면서 청년들은 언택트(Untact) 시대 상황으로 교회를 향한 발길이 끊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회는 머리를 맞대어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비전대회를 진행하여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있을지, 성도님들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후원금을 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이 선교비전대회를 위해서 금식기도를 시작하니, 머리로는 찾을 수 없던 지혜를 주셔서 계획을 수립했고,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들이 실행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교비전대회는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비전대회 중에 7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한 편지를 써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



2021년 성도들이 직접 선교사님께 쓴 손편지

습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편지를 작성 및 취합할 수 있는 부스를 선교관 앞에 설치하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대회 당일까지도 과연 편지가 채워질까? 생각했지만 준비한 우체통에는 편지가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선교에 관한 마음과 복음에 관한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때 다시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부흥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청년부는 선교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2021년 하계비전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9)

이 말씀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향한 선교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어떤 씨앗이 뿌려졌으며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아가는 선교비전트립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겨내는 청년부,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선종현 성도
청년부 청년회장

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최저기온 영하 8도의 구름 낀 날이었습니다. 당시 두 살짜리 딸을 둔 스물아홉 살 어린 신학생인 저에게 영락교회는 전임 교역자라는 ‘자리’를 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북도봉교구, 소그룹전담부, 명동노방전도대, 제자양육훈련부, 예배 찬양, 포이메네스 등을 포함한 여러 보직이 주어졌습니다. 교역자로서 마음을 다해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인생의 터널 끝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다가가 삶을 위로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의 손을 꼭 잡으며, 열심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어 눈물 흘리셨던 분들 옆에서 함께 울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의 ‘자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가리개를 벗으며 마주친 아버지

인디언 소년 체로키는 13살이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에게 사냥하는 법, 경찰의 기술, 칼 쓰는 방법, 낚시하는 노하우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 해, 생일에 아버지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며 말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절대로 눈가리개를 풀면 안 된다. 해가 뜬 후에 스스로 눈가리개를 풀고 숲 밖으로 나오너라.”

눈을 가린 채로 먼 숲속에 버려지니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두운 밤이 되자 소년 근처의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립니다. 그 소리에 소년은 두려워 몸을 움츠립니다. 맞은편 산속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자 행여 자신을 해칠까 무서워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세찬 바람을 홀로 버텨내며 소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여기 두신 걸까?’

위험천만한 깊은 숲속에서 의도적으로 버려진 채 지나간 어둠의 밤을 소년은 홀로 지냅니다. 13살의 소년이 스스로 견뎌내기에는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순간도 지나가고, 인디언 소년은 새벽을 깨우는 한 가닥 섬광을 눈가리개 틈새로 봅니다. 그러고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숲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우거진 나무들은 소년에게 함박웃음을 짓기라도 하듯, 너무도 푸르게 소년을 반깁니다. 울퉁불퉁한 오솔



길이 소년의 어린 발을 쓰다듬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곳에서 몇 미터나 움직였을까요, 소년은 예상치도 못한 누군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맞습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인자한 미소로 소년을 바라보며 웃음 짓는 남자, 바로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소년과 불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그와 함께 온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소년은 외로움과 홀로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옆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3년 걸려 변화시키신 나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어 (시편 8:2)

‘교역자’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주어졌고 그분께 의해 계시’

된 자리입니다. 저는 오만한 자기 확신에서 한 발짝 벗어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배워가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의 시간동안 깨우친 경험으로 더 진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까지 저의 찬양을 받으실지 확신할 수 없으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남**



노진석 전도사
강북·도봉교구
제자양육훈련부

너무도 달라진 사회, 구역 섬김도 새 전략 필요

20년도 넘은 이야기이다. 좀 젊은 사람이 구역장을 해보라는 강권에 밀려 멋모르고 구역장을 맡게 되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까 덜컥 맡아 놓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서 구역장과 권사, 집사 3명이(그분들보다 한참이나 어린 나를 구역장이라고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남』을 들고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그간의 사정들을 나누었다. 우리 구역에는 장기 환자가 있어 병원으로 매주 심방을 했다. 자연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사정을 모를 수가 없게 된다. 어떤 구역 식구는 현관문으로 뺨뽀 손만 내밀어 『만남』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내가 무슨 외판원도 아닌데 하며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 구역 식구가 지금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요즘이라면 문도 안 열어줬을 텐데 싶어 웃음이 난다.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이 내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집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의 구역원이 다 모였으니 서로 잘 알게 되어 동네에서나 교회에서 마주치면 동기간을 만난 듯 반가워했다. 그러다 다른 구역으로 이사 가신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회 마당에서 당시의 구역식구를 만나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리숙해서 제대로 구역장 일을 감당하지 못한 내게 ‘우리 구역장님’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 다시 몇 해 전 지금 사는 곳의 구역장을 맡게 되었다.

그때의 구역과 지금의 구역은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성숙 권사
서초교구 30구역장

첫째로 가정을 개방하지 않는 추세가 강하다. 구역예배를 위해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집들이도 집에서 하지 않고 집 근처 식당에서 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둘째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역이나 여전도회 등에 소속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셋째로 예전처럼 유대감이 강하지 않기에 자신을 드러내는데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 일에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심방을 받으시겠느냐고 하면 받겠다는 가정이 50%를 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심방이 무엇인가요? 하고 되묻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용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넷째로 이사를 해도 이사 간 구역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자녀가 결혼하여 다른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교적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리하기가 힘들다. 구역 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이 교구에 오래 있었고 새로운 교구는 교회를 옮기는 것처럼 낯설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도 이사하고 교구를 옮겨 보아서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은 더욱 힘들어지

고, 구역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속사정을 알기가 어렵다. 구역 전체가 모이기 힘들다 보니 같은 구역이어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역장이 맞나? 어떻게,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지? 하고 반문할 때가 있다. 새 구역원이 와서 전화하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경우도 많기에 반드시 문자를 남기고 전화하는데 그 전화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구역원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서도 알려주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구역원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20년 전 유대감이 끈끈했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과 의식이 많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것에 대응하지 못하면 구역의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남을 것이다. 지금도 예전과 같은 그런 모임과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구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비단 나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구역장이 방문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싶다. 다행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대로365>가 매개체가 되어 매일 구역원들에게 문자로 전하고 있다. SNS, 온라인, 모바일 등 기기에 익숙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젊은 세대에 맞는 접근방법과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구역원의 신앙성장을 위해 구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만남**

영적생명을 살리는 세계교화갱보협회

‘재소자는 육신에 갇히고, 출소자는 염려와 두려움에 갇히나, 믿음의 신앙적 결단으로 이겨내도록 돕는다’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우리나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절, 각종 범죄가 만연하던 1991년에 정신적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하여 교회와 사회지도자 열두 분에 의해 한국교회 연합 선교단체로 설립되어 1996년에 법무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한 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첫째로 교정시설 재소자를 상담과 복음으로 교정·교화하고, 둘째로 만기출소자 중 무의탁자들을 생활관에 보호하여 일정 기간(2년 한도) 의식주 무료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생업 조성을 지도·협력하여 사회 정착을 도와서 재범을 방지하며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협회 주요활동을 소개해드리면,

1. 교정시설 방문 및 예배, 상담 및 영치금 지급
(교도소 2곳과 구치소 2곳 담당)
2. 남·녀생활관 운영을 통한 출소자 지원
(남녀생활관 25명 수용)
3. 출소자 가족 그룹홈 지원 사업
(10가정 32명 수용)
4. 일자리 창출, 학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금성농장 및 손 세차장 운영)
5. 기초생활수급 자격 취득 및 생활 대책 마련
6. 병원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

일반적으로 한 명의 절도범이 한 달에 2~30회 정도 남의 집이나 가게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이 범죄행위로 인해 겪는 손해는 물질적인 피해만 해도 2천만 원에 이르고, 수십 년에 이르는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을 합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매달 5,000여 명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지만, 전과자에 대한 사회 냉대, 대화 단절 등 사회 적응이 어려워 2~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전과 경력이 평균 7범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관을 거쳐 간 사람들의 재범률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역에 보람을 느끼며 일합니다.

출소 후에 시간을 귀히 여기며,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먹지만, 교정시설에서의 수동적인 삶으로 생긴 나태한 습관과 세상의 온갖 어두운 이야기를 접하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서로 뒤엉켜 정신착란증으로 고통받는 이가 많습니다.

출소자들은 빈손으로 홀로 살아야 할 남은 생애에서 경제생활의 염려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출소자들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먼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훈련과 이웃과 협력하고 봉사하는 삶의 지혜를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5가지 생활신조를 강조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성탄예배특송



2020년 10월 21일 금성의집 고구마밭 수확

1.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 홀로서기에 달인이 되자
(혼숙, 혼밥, 기도 습관).
3.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돈 관리와 저축 훈련).
4.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웃 돕기 훈련).
5. 인생의 멘토는 바로 옆에 있다(형제 맺기).

국가보조금만으로 생활관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할뿐더러 재소자 자녀와 출소자의 중·고교 등의 기본적 학력과 배움이 갈급한 이들의 대학교 학자금, 삶의 기반이 될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고액의 입원수술비 등 후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감방 다녀온 사람들을 왜 도와주어야 하지? 우리 주위에 착하게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 대부분임을 기억한다면, 이들을 돕는 우리를 통해 한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이사장 (고) 김홍도 목사님이 재소자들과

출소자들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며 27년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습니다. 교정시설 재소자 총 14,000명을 상담과 신앙으로 교정·교화하고 무의탁 남녀 출소자 총 2,400명을 보호·지도하므로 성실한 직장인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특수교정 목회자들도 배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협회사역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슈페리어 대상>에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하신 <슈페리어 재단(이사장 김귀열 장로)>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세계적으로 발전하여 록펠러 재단에 버금가는 귀한 업적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
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3) 만남



이정호 은퇴장로
강서·구로·양천교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며 떠나신 어머니

어머니가 소천하실 무렵쯤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시던 모습은 마지막을 순리대로 기다리는 ‘평안’이었습니다. 바싹바싹 말라 흠어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거의 가실 때를 직감하셨나 봅니다. 마지막 날 하루 전, 이미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 듯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영양제를 한 번 더 투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양제가 무슨 필요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어머니 몸은 퉁퉁 부었습니다.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열두 명 우리 형제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의사, 검사, 변호사, 교수로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길에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부러져 고생하시다가 2013년 돌아가셨는데, 깊은 병중에도 자기 관리가 엄격하신 분이랄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문득 정신이 있다가 없으신 것 같은데도 정갈한 모습 보이시려 머리를 쓸어 넘기시고 얼굴을 매만지시거나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만 들리도록 나직이 되뇌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는

후회나 미련이나 애처로움은 없으시고, 평온함과 잔잔한 모습이 가득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3개월의 요양 기간 말고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일을 마다하셨습니다. 불만이나 후회나 아쉬움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송고하기까지 한 고집스러운 홀로 살기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에 찾아가면 따뜻하고 여름에 찾아가면 시원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보고 싶어 모신 곳을 찾아가서 어머니와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 키울 때가 제일 좋았다. 복닥거리며 살 때가 좋았다. 옛날에는 추워서 감기를 달고 살았지. 지금 세상은 얼마나 좋으냐? 즐겁게 살아라. 건강 잘 챙겨라.’ 살아계실 때처럼 마음에 전해 옵니다. 어머니를 위한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차마 발걸음 선뜻 내딛지 못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어머니 곁을 다녀오면, 마음을 편안하게 바꿔주는 꽃씨 같은 작은 행복이 채워집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다 가자,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래 아프지 말고 눈 감는 날까지 정갈하게 살다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만남**



나선환 장로
관악·동작·금천교구

초음파 검사 자세히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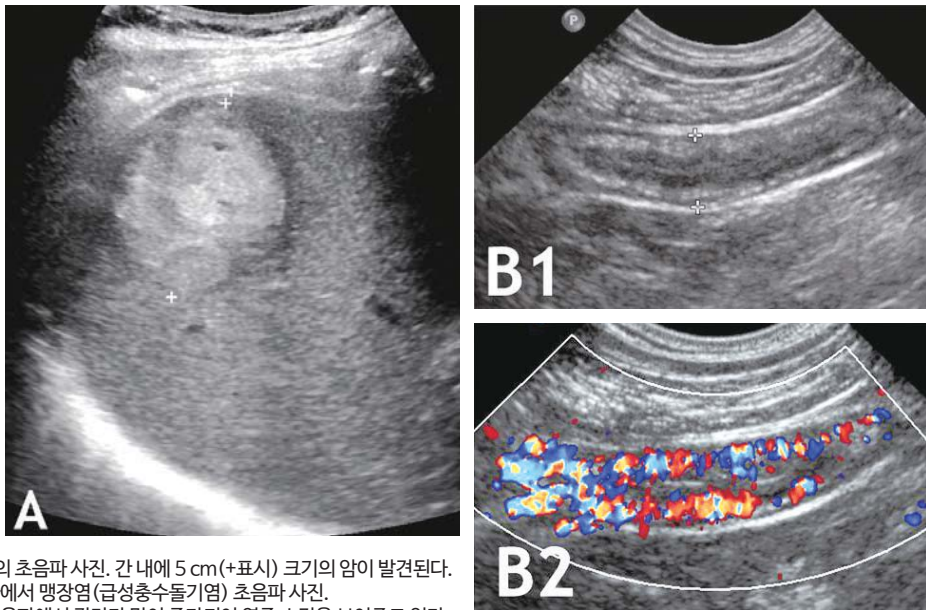


1. 초음파란?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음파의 일종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초음파를 사용하는 박쥐는 몸에서 발사하는 초음파가 장애물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초음파를 과학적으로 처음 이용한 것은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선체 탐사였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프랑스에서 독일 잠수함 탐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수심측정, 어군탐지 등의 수산해양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1940년대에 뇌 초음파가 처음 개

발된 이후, 꾸준한 연구의 결과로 1980년대에 오늘날과 같은 실시간 초음파를 질병진단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만져보고 청진기로 들어보는 진단을 했으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체 내부를 실제로 들여다봄으로,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야 발견되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의학적 이슈인 갑상선암의 경우, 이전에는 만져질 정도의 크기에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초기 3mm 크기의 작은 암도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어서 갑상선암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A : 간암의 초음파 사진. 간 내에 5 cm(+표시) 크기의 암이 발견된다.
 B1: 소아에서 맹장염(급성충수돌기염) 초음파 사진.
 B2: 색초음파에서 칼라가 많이 증가되어 염증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

2. 초음파 검사의 범위

초음파는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활용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진단 분야이다. 복부 초음파 진단을 통해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비장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갑상선, 유방, 근육, 골격, 심장 등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질환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다. 즉 신체 각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이나 비정상적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급성 복통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 예를 들어 맹장염(충수돌기염), 게실염(대장의 벽에 생기는 염증), 장염 등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간과 같은 조직의 샘플을 채취하여 병리적 진단을 하는 조직검사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초음파 진단만을 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암세포를 높은 온도로 괴사시키는 고주파 열 치료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간암 치

료는 간을 절제해서 치료하던 수술적 치료법을 고주파 열 치료술로 대체하고 있다.

3. 초음파 검사의 장점 및 단점

초음파 검사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방사선 피폭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 촬영이나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등 많은 영상검사는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검진할 때 CT 검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시행할 경우,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사선 피폭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특히 방사선이 위험한 어린이들에게 좋은 진단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급성 복통을 비롯한 복부 검사를 시행할 때, CT



검사와 같은 방사선 피폭이 있는 검사보다는 초음파와 같이 방사선의 위험성이 없는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초음파 검사의 단점은 검사를 시행하는 시술자의 경험과 지식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적절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초음파 검사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초음파 검사 전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준비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할 때 바르는 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인체에 해가 전혀 없고 검사 후, 휴지나 수건으로 닦아 내면 된다. 초음파 검사는 대체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질환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인체에 해가 없으므로 오랜 시간 검사한다고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형이나 C형 등 간염 보균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를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간단히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의 청지기로서 건강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초음파 검사와 같은 해가 없는 진단 방법을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혹시 있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남**



이관섭 검사
동대문·중랑교구, 의료선교부
한림대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쉼으로의 초대



마르바 던 / IVP / 316쪽

여름, 쉼과 휴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일터에 매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은 물론, 고된 학업에 매여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에게, 또 그들의 가족에게 여름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두 달 동안의 쉼을 통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천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주로 7, 8월에 휴가를 떠나다 보니,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숙소와 교통편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잘 쉬기 위해서는 ‘쉼’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공부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준비하며, 또는 휴가나 방학 동안 읽을 만한 쉼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르바 던(Marva J. Dawn)이 쓴 『안식』입니다.

이 책은 1989년에 미국 어드만(Eerdmans) 출판사에서 ‘Keeping the Sabbath Wholly(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판되었고, 한국에서는 2001년에 IVP를 통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서점에서도 안식과 관련한 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책이 처음에 한국에 소개되던 2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서점 매대에서 이 책을 처음 발견하고 받았던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오래전 책을 다시 소개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책이 작년 8월에 새로운 디자인과 판형으로 재조판 되어 출간되었고, 또 저자 마르바 던이 지난 4월 18일에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학자이자 작가인 그녀의 책은 국내에도 『안식』을 필두로 여러 권 번역되었습니다. 던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신학교(Regent College)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강연했습니다. 이러한 경력 외에도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평생 장애와 각종 질병을 안고 산 연약한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일 지키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안식』에는 영성훈련으로서의 ‘안식일 지키기’에 대한 현대적인 통찰이 담긴 이론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이 담겼습니다. 개신교인 던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배운 안식일 지키기를 자신의 전통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독자들에게도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실천하라고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저자는 안식일 지키기에 대해 결코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이든,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일이든, 또는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주중의 하루이든 간에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로 온전히 지키기를 초대합니다. 그녀는 ‘옛새 일하고 하루 쉬기’는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또 우리 내면 깊이 새겨 놓으신 리듬이라고 소개합니다. 리듬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사귄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부로 구성된 이책은 각각 ‘그침’, ‘쉬’, ‘받아들임’,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안식일 지키기의 네 측면, 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네 묶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

어져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일주일에 한 부,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며칠 만에 독파할 수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천천히 읽는 것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머리로만 아니라 몸으로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 읽기보다 가족이나 소그룹이 함께 읽고 주일마다 나누다면 안식일 지키기를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고, 나눔을 통한 유익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비록 이 책은 휴가나 방학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매주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휴가나 방학을 훨씬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



권혁일 목사
관악·동작·금천교구
영락수원원, 영락기도대
갈릴리찬양대

회복(Recovery)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활짝 열어놓은
마음 깊숙이
다가오신 나의 주님
하늘을 열어 베푸시는 은총
온 땅 가득 채우소서
못 자국난 두 손 가슴에 품고
이 모습 이 대로...
다독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세상은 감사와 기쁨 가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통과 가시면류관의 찢림, 황폐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남**

송경희 권사_서대문·은평교구

한경직 목사님께 받은 용돈 이제 갚습니다

한 익명의 성도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 6월 6일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성도는 한 목사님 생전에 용돈을 받았는데, 이를 유족들에게 갚고자 했으나 유족들의 뜻에 따라 기념사업회에 기부하였다. 아래는 기부금과 함께 보내온 편지 전문.

“한경직 목사님을 만난 이후 살아온 43년간의 삶이 저의 63년간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의 용돈을 받았던 저는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처럼 벌어서 풍족한 돈으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서거 후 방송을 통해 통장도 집도 없는 무일푼이었다는 말씀을 듣고 “돈 한 푼 없으신 분께서 학교 다니라고 학비를 내주신다고 하셨어?” “난 100% 믿었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지만 당시는 먹고살기 바빠서 “훌륭한 분을 알고 지냈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연락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경직 목사님에 관해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연락을 취하다가 결국 몇 자 적습니다.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봉투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학비가 아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목사님 가족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게 은혜를 갚아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더 늦지 않도록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교회소식

news letter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갖고 -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개최

1~4여전도회는 지난 6월 18일(금) 오전 10시반부터 베다니홀과 드림홀에서 3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눈을 들어 발을 보는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구성숙 권사(1여회장)의 인도로 강신재 권사(2여전도회장)의 기도, 유정은 집사(4여전도회장)의 빌레몬서 1장 8절~12절 성경봉독,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박영구 목사(해방교회)의 '감히 중에 놓은 아들'이라는 말씀 순서로 진행되었다. "감옥에서도 죄수였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열정을 본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는 곧 영락의 여전도회원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참석한 여전도회원들은 전도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다짐하며 여전도회 사역을 위해 봉헌했고 목사의 축도로 수련회를 마쳤다.

취재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권사회, 실행위원 및 지회임원 2021 수련회 개최



권사회 (회장 김영하 권사)가 지난 5월 25일(화) 오전 10시 반부터 기념관 5층 스튜디오실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행위원 및 지회임원이 참여하여 권사수련회를 개최하였다.

1부 경건회는 김영하 권사의 인도로 사도신경, 권사회 찬양대 중창단의 영상찬양이 있었다. 황광용 목사(권사회 지도목사)께서 '믿음으로 기뻐하기(빌립보서 4: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신뢰하며 굳건히 믿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의 여종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부 특강으로 이왕재 교수(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허브교회 장로)를 모시고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성경 속에 나타난 120세 건강 장수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의 중요성을 강조 하여 권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교회사랑은 작은 실천을 행함으로부터

안수집사회는 지난 6월 5일, 산업용 청소기 두 대를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자원봉사부 지도목사, 부장, 행정처장, 자원봉사부 임원, 안수집사회 회장단, 45기·47기 안수집사들이 참여했다.

4월부터 시작된 ‘교회사랑 청소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5월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안수집사회 회장단과 2남 선교회 중양회에서 기존의 청소도구로 베다니홀을 청소하면서 불편함을 알게 된 안수집사회 회장단이 교회사랑 청소 자원봉사를 돕기 위해 베다니홀 전용 산업용 청소기를 기증한 것이다. 모든 제직부와 선교회, 성도님들 모두 ‘교회



사랑 청소 자원봉사’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제공 안수집사회

만남지 특집기획



홍보출판부는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도바울의 선교지인 지중해 연안, 최초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Jan Hus)의 프라하, 칼뱅의 제네바 등 중세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유럽의 도시 탐구를 기획하고, 아울러 미국 및 영국의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역사 현장과 양화진 등을 기획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또 미래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2030 탈종교화 원인 및 대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결과물을 향후 『만남』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지청 장로 _ 홍보출판부 부장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미로찾기

‘눈을 들어 받을 보라’ 말씀을 품고 온 가족이 다 함께 2021년 영락산상기도회를 찾아가 봅시다.
정답은 다음호에 알려드립니다.



7월 목회력

6월 28일(월)~7월 4일(토)	하반기맛이 '특별새벽기도회'
3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4일(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11일(주일)	제직회
25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심방준비회
28일(수)~30일(금)	산상기도회 1차

※ 7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같은 그림 찾기

1,4번



2021년 7월호 통권 569호

발행 2021. 7.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강덕진 정용성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운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제61회 산상기도회

주제 : 눈을 들어 발을 보라(요한복음 4:35)

대회장 : 김운성 위임목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베다니교회로 시작한 이래 구원의 촛불을 켜고 민족복음화와 지구촌 선교 사역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 온 지 75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61회 산상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가 눈을 들어 발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자세로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1회 산상기도회가 축복받는 성회가 되도록 힘써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2021년 7월 28일(수) ~ 7월 30일(금) | 장소: 본당



강사: 김운용 목사(장신대 총장 서리)

집행위원장: 이석호 장로

참여교구: 1(강남) 3(성동·광진) 6(강서·구로·양천) 8(동대문·중랑)
10(종로·성북) 11(노원) 14(인천) 15(성남·분당) 16(고양·파주)

2차 2021년 8월 4일(수) ~ 8월 6일(금) | 장소: 본당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집행위원장: 양인성 장로

참여교구: 2(강동·송파) 4(중구·용산) 5(관악·동작·금천) 7(서대문·은평)
9(마포·영등포) 12(강북·도봉) 13(서초) 17(안양·수원)
18(용인·화성)

영락화랑

회복 (Recovery)



송경희, Acrylic on canvas, 90.5×72.5cm, 2021년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